

올해 여름 수련법회는 월드컵의 영향으로 참석인원은 예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가족수련법회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사찰이 일반인과 불자들의 신앙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을 비롯한 수행 및 신도단체, 신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련법회를 모두 취합하면 여름 수련법회 참석인원이 예년과 비슷한 3만~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름수련회’ 결산

8월 27일 현재 조계종 포교원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올해 18개 교구본사가 67회에 걸쳐 실시한 수련법회의 참석인원은 7,595명으로 지난해보다 2005명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말사의 경우는 60곳의 사찰에서 146회를 실시, 9311명 참석해 역시 지난해보다 5,689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사별 참석인원은 통도사 1293명(총 6회), 해인사 1160명(7회), 송광사 705명(6회), 법주사 610명(4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본말사를 통틀어 대상별로는 어린이 수련회가 57곳, 청소년 28곳, 일반 76곳, 가족 6곳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수치상 크게 줄어든 수련법회 참석인원의 감소는 포교원은 월드컵과 템플스테이 열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사찰에서 숙박하지 않는 여름불교교과 사찰을 대부분 제외하는 것이 통계상의 수치 감소로 나타났다는 설명.

주말수련회가 인기를 끌면서 수련법회가



◇여름사찰수련회가 인기를 끌면서 주말수련회 등을 상설화 시키는 사찰이 많아지고 있다. 포교원과 남양주 보광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시범 실시한 주말수련회에 참석한 수련생들이 전나무 아래서 경행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요구돼

**올해 월드컵 영향 참가자수 감소
운영마인드 제고, 상설화 사찰 늘어
“사찰에 신도 전용수련관 있어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참석인원 감소의 원인으로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여름 수련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사찰의 운영 마인드는 고조되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련 시설과 여건을 갖춘 대부분의 사찰이 수련회를 실시하는 등 이제 수련법회는 재가자 포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주지 및 사중 스님들의 운영 마인드도

크게 제고되었다는 게 포교원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법회가 참석위주의 수행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등 참가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실행의 깊이에 맞는 다양한 수련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8월 29일~30일 계룡산 갑사 유스호텔에서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워크숍에서 국장스님들은 사찰공간의 개방이

스님들의 수행환경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사(佛事) 때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신도들의 수련공간을 분리해 건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원은 내주중 수련생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사찰수련법회의 상설화를 적극 유도하고 어린이 및 초심자를 중심으로 수련법회 참가자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별 수련회는 물론 주말 수련회, 사찰체험 프로그램, 가족수련회, 주말 시민선방, 개인수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설수련법회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년전부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찰수련정보센터(www.pogyo.org)도 콘텐츠를 보완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불교정보화 펀드·전담기구 절실”

김응철 승가대 교수 불정협 초청강연서 주장



◇중앙승가대 김응철교수가(가)불교정보화협의회 초청으로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진흥 펀드를 조성하고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6일 (가)불교정보화협의회 이하 불정협 운영위원장 서동석 이사장이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불교정보화 현황과 비전’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불교정보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불교정보화가 신도 몇사람 늘어나는 성장제일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변화의 흐름에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에서 불교정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지기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불교는 시대의 정신과 역사, 문화를 이끌어 왔기에 사회가 급속히 변한다 해도 이같은 역할은 지속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원 급선무

“‘협의회’ 창립 관련사업 추진에 주력”

김응철 교수는 “지난 4월 실시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지역, 종단, 조직 규모 등에 따라 정보화 격차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이 절반도 안되는 등 불교계의 정보사회 적응력이 그리 높지 않고 기초 인프라 부재, 전문인력 부족,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 개발 등이 불교계 정보화의 문제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이나 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정보화 교육과 인재양성, 인프라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불교정보화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것”이라며 “이번 강연이 불교계의 정보화 현실과 발전방향을 모든 불자들이 함께 고민해 보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석 운영위원장은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단을 포함한 18개 불교단체들이 그동안 몇차례 실무모임을 갖고 (가)불교정보화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이제 불교정보화협회를 창립, 연구와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주)에플에어정보통신이 협찬한 이날 강연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해인스님을 비롯해 고려대장경연구소, 생명나눔실천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등 불교단체장 70여명이 동참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축하환을 보내왔고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일민스님과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김 교수는 또 “불교정보화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 포교사 양성, 다양한 불교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추진기구인 불교정보화협의회 발족을 통해 불교정보화진흥 펀드를 조성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a.com

해인사 최대 추모사찰 ‘미타원’ 개원

납골 1만3천기 수용·극락보전 등 갖춰
13일 법회·죽음체험행사·축하공연도



◇해인사미타원전경.

국내 최대 규모 납골추모관인 해인사 미타원이 13일 오전 11시 개원한다. 한편 해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대자산 미타원(주지 선각은) 1만3천기의 납골시설을 갖춘 납골 추모관.

대립산업주의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에서 150억원을 투입해 완공, 해인사에 기부체납한 미타원은 현대식 건축의 극락보전과 명부전, 일주문, 요사채 등을 갖췄다. 조선시대 왕실인 대자산 봉덕사 자리에

졌다. 1층은 구불연지를, 납골추모관 건물은 반야용선을 형상화했다.

이번 납골추모관 미타원 개원은 심각한 묘지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을 이 34%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연고 묘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립산업의 납골추모관 사찰기부 형태는 기업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모범모델로 인식되며 삼성그룹 등 10대기업등에서도 적극적인 벤처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납골문화 확산의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 정몽준 박근혜의원,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순학규 경기도지사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13일 개원법회는 장례문화 개선 서명식과 죽음체험 행사,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납골당 개원에 맞춰 사회지도층의 화상유언과 실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 963-7588.

김원우 기자 wkwrm@buddhap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시간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해인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인사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분한신고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창종주 일불존자 큰스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하면서 분열되었던 종단의 안녕과 화합을 위하여 저희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는 종단을 애중하고 지지하여 주시는 모든 중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는 3차로 그 동안의 신영동 측 (현기흥스님 및 장영종스님)과 법정관계가 본 수유리 총무원의 승소로 모두 종결되었으니 각 사암에서는 각 지역 교구를 통하여 분한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한기간동안 접수되지 않은 중도님은 기간후 탈종처리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02년 9월 7일 ~ 10월 6일까지

▶ 대상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전종도

▶ 접수처 : 각교구 총무원

- | | |
|--------------------|--------------------|
| 서울교구 (02)523-2566 | 강원교구 (033)682-1933 |
| 경기북부 (031)867-6391 | 경기남부 (031)312-4691 |
| 인천교구 (032)888-5357 | 충북교구 (043)292-4441 |
| 대전교구 (042)673-7085 | 대구교구 (053)324-0882 |
| 전남교구 (062)261-0108 | 전북교구 (063)653-6667 |
| 경북교구 (054)637-4657 | 경남교구 (055)672-2876 |
| 부산교구 (051)558-5031 | 울산교구 (052)268-5565 |
| 제주교구 (064)796-4801 | |

※ 지역 총무원이 없는 경우 총무원(02-998-8161/2)으로 접수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장 동봉